

#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유창성 특성

## Nonfluency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신명선

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Myung-Sun Shin(sms2012@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언어연령이 정상 범주에 속하는 3~5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 다시말하기와 그림설명하기 과업으로 유도한 발화를 통하여 비유창성 평균빈도와, 비유창성 유형, 구어속도를 측정하고,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두 과업 모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비유창성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야기다시말하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유창성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3세와 4세, 3세와 5세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비유창성 유형 또한 두 과업 모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이 일반가정 아동 집단보다 비정상적 비유창성 유형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두 과업 모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구어속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언어적 지원을 시도할 때 편안한 의사소통 환경과 점진적인 발화길이 및 복잡성의 증가를 통하여 아동의 비유창성을 감소시키고 유창성을 강화하는 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 | 다문화가정 아동 | 비유창성 빈도 | 비유창성 유형 | 구어속도 |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disfluency in 3~5 year-old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MFC). 24 children(12 MFC, 12 Korean monolingual children, KMC with the same chronological age and language ag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experimental tasks consisted of story retelling tasks(SRT) and picture description tasks(PDT). In all the tasks, the scores of total disfluency of the MFC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KMC. In all the tasks, the frequency of abnormal disfluency of the MFC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KMC and the speech rates of the MFC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KMC. The disfluency observed in MFC indicates that language ability influences on their disfluencies and fluency support of MFC is an important factor in general language support.

■ keyword : |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 Type of Nonfluency | Speech Rates |

### I. 서론

200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자녀가

58,000명이며[1], 이들의 언어, 학습 및 또래 아동들과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어 많은 분야에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 본 논문은 2009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번호 : #101007-006

접수일자 : 2010년 10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1월 04일

교신저자 : 신명선, e-mail : sms2012@hanmail.net

러한 문제의 가장 큰 근원은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로 좁혀질 수 있다[2]. 다문화가정 아동은 영유아기에 한국어와 전통적 한국 문화에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 부모의 양육으로 언어자극이 부족하여 언어습득에 어려움이 있다[3].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및 학습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또래 아동보다 언어 수행 능력이 지체되고[4], 언어 및 학습 이해력은 또래아동들과 차이점이 많지 않으나 표현력이 지체되며, 특히 어휘력이 부족하고 발화길이 짧은 특성이 있다[5][6]. 다문화 가정 아동이 또래 생활을 시작할 때 기능적 언어 습득 능력이 낮아서 또래 관계 형성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4][7]. 그러나 이중언어 환경 아동들의 언어발달이 단일언어 환경 아동들보다 언어발달이 지체되거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능력도 증가하며, 의미론적 발달에서 의미유형의 경우 단일어와 개별의미에서 차이가 없었고, 구문론적 언어발달 중 평균 형태소 길이에서도 차이가 없었다[8]. 이러한 상반되는 연구들은 다양한 다문화 지원 정책을 통한 혜택의 여부와 지역적인 차이, 부모의 교육 및 환경적인 수준에 따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능력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에서 생활하는 학령기 이전의 아동에게 체계적인 지원 모델이 개발되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0]. 그러나 최근에는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양성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언어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문제는 언어장애라기보다는 언어차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적인 특성에서 가져오는 방언보다는 더 많은 부수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및 구어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학령기 이전의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체와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고 또래사회에 주도적으로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학령기 이전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언어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다양한 의사소통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기존

의 의사소통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은 언어 및 학습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일반가정의 아동들에 비하여 언어연령에 차이가 있는지, 어휘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학령기 이전의 다문화 가정 아동은 문화 및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언어발달 뿐만 아니라 구어의 비유창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어휘력 증진으로 이해력 및 표현력이 증가하였지만 상황이나 대상에 적합한 구어의 자연스러운 사용과 관련된 유창성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비유창성은 발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누구나 어느 정도의 비유창성을 나타내지만 다문화 가정 아동은 부족한 어휘력, 단어의 배열 순서와 규칙과 구문력,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화용론적인 언어 능력이 부족하여 언어를 구사하는 데 더 많은 머뭇거림을 나타낼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또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또래와 관계를 확립, 유지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말의 사용은 화자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전달되었는가와 같은 명료도와 관련이 높으며 이는 의사소통의 효율성 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 화자의 정확한 조음, 장단, 적절한 구어 속도, 발화의 길이, 숨의 빈도, 머뭇거림의 빈도 및 유형 등이 말의 명료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구어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유창성은 특히 의사소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구어의 흐름을 방해하는 비유창성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 누구나에게 특히 언어발달기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더 자주 나타난다. 다시 말해 ‘어’나 ‘음’과 같은 삽입, 단어나 구의 반복, 다양한 길이의 숨, 말을 한 후 더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잘못 말한 후 다시 바르게 말하는 수정, 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기 위한 머뭇거림 등과 같은 비유창성은 대부분의 아동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구어 유창성이 일반아동들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초기에는 언어발달에 차이를 가져오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언어발달의 차이가 좁혀진다는 연구들이 일반적이다[8]. 이러

한 언어연령의 증가에 따라 유창성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지는 또래와의 언어차이를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지도는 어휘력 향상과, 구문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중재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유창성에서 질적인 차이와 양적인 차이를 비교하여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더 효율적인 자극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 중 언어연령이 정상 범주에 속하는 3~5세 아동들과 생활연령이 동일한 일반아동들을 비교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유창성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유창성 빈도가 일반가정 아동들과 차이가 있는가?
-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유창성 유형이 일반가정 아동들과 차이가 있는가?
-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구어속도가 일반가정 아동들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언어연령이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3~5세 다문화가정 자녀 12명과 이들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가정 아동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아동 모두 부산, 경남 지역 내에 거주하며,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11], 결과 생활연령에 비하여 6개월 이상 지체되지 않는 정상 범주에 속하며, 지적능력, 청력, 사회성, 다른 감각기관 등에 문제를 보이지 않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어머니가 한국에 이주한 지 5년 이상인 아동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평균연령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인 정보

연령	다문화가정 아동(개월)			일반가정아동(개월)	
	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	4	40.5	4.65	42.0	5.35
4	4	53.0	3.08	56.0	4.08
5	4	68.0	1.15	65.0	2.30

### 2. 연구절차

3~5세 다문화가정 아동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경남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 50여명에게 PRES를 실시하여 정상 범위에 속하는 아동을 선정하고, 선정된 아동과 생활연령이 동일한 정상 아동을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의 비유창성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발화수집 자료는 파라다이스-유창성 검사에서[12] 취학전 아동에게 실시하는 이야기다시말하기와 그림설명하기를 사용하였다.

대상 아동들 모두가 두 가지 실험상황, 즉 이야기다시말하기와 그림설명하기 과업에 각각 참여하는 피험자내 연구설계(within-subject designs)를 사용하였다. 두 가지 실험상황 간의 순서효과를 막기 위해 상쇄균형화(counterbalance)를 취하였다.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업에서 아동들의 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토끼와 거북이’를 아동에게 들려주고, 아동들은 들은 이야기를 연구자에게 다시 말하도록 하였다. 그림설명하기 과업에서 아동들의 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놀이터’ 그림을 사용하였다. 아동들이 그림을 보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며, 하나의 과업이 끝난 후 다른 과업을 실시하기 위해 3~5분의 휴식시간을 두었다. 각 과업에서 최소 200음절 이상의 발화를 수집하였다. 모든 대상 아동들의 발화를 녹화하고, 녹취하여 분석하였다.

### 3. 자료 처리

#### 3.1 비유창성 평균빈도 분석하기

각 발화과업에서 비유창성이 나타난 음절의 빈도를 측정하였다. 200음절 이상의 발화 중 앞, 뒤의 발화를 제외하고 200음절을 분석하여 산출하였다.

3.2 비유창성 유형 분석하기

P-FA의 비유창성 유형 분석 기준에 따라 아동의 발화표본에서 나타난 비유창성 유형을 정상적 비유창성(normal dysfluency: ND)과 비정상적 비유창성(abnormal dysfluency: AD)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3 분당 음절 수 세기

구어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분당 말한 음절 수(syllable per minute: SPM)를 분석하였다.

4. 통계처리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비유창성 평균빈도, 비유창성 유형별 빈도 및 구어속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처리 소프트웨어는 SPSS 12.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비유창성 평균빈도 비교

1.1 집단 간 비유창성 평균빈도 차이

이야기다시말하기와 그림설명하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발화에 나타난 비유창성 평균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야기다시말하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비유창성 평균빈도가 12.58회, 일반가정 아동들은 5.83회가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비유창성 평균빈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5.588, p<.05$ ). 그림설명하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비유창성 평균빈도가 11.58회, 일반가정 아동들은 5.33회가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일반가정 아동들보다 비유창성 평균빈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2.14, p<.05$ ).

표 2. 집단 간 비유창성 평균빈도 분석

과업	다문화가정아동		일반가정아동		t
	M	SD	M	SD	
이야기다시말하기	12.58	3.87	5.83	1.58	5.588*
그림 설명하기	11.58	3.34	5.33	2.14	5.450*

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령별 비유창성 평균빈도 비교

이야기다시말하기와 그림설명하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령별 비유창성 평균빈도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야기다시말하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유창성 빈도가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1.37, p<.01$ ).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연령대를 알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3세와 4세( $<.05$ ), 3세와 5세( $<.01$ )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설명하기에서는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의 연령별 비유창성 평균빈도의 분산분석

과업	연령	M(SD)	SS	df	MS	F	Scheffe
이야기다시말하기	3	17.00 (3.36)	118.16	2	59.08	11.37**	3세 > 4, 5세
	4	10.75 (1.50)					
	5	10.00 (1.41)					
그림 설명하기	3	12.00 (4.24)	37.167	2	18.58	1.95	
	4	13.50 (1.91)					
	5	9.25 (2.62)					

2. 비유창성 유형 분석

다문화가정 아동집단과 일반가정 아동집단의 ND와 AD 유형별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야기다시말하기에서 ND 빈도와 AD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AD 유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057, p<.05$ ). 그림설명하기에서도 AD 유형에서만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2.201, p<.001$ ).

표 4. 집단간 비유창성유형 분석

과업	비유창성 유형	다문화가정아동 M(SD)	일반가정아동 M(SD)	t
이야기다시 말하기	ND <sup>1</sup>	11.00 (3.35)	5.16 (1.46)	5.515
	AD <sup>2</sup>	1.50 (1.24)	0.66 (0.65)	2.057*
그림 보고 말하기	ND	9.50 (1.83)	4.50 (1.83)	6.678
	AD	2.08 (1.83)	0.83 (0.71)	2.201***

<sup>1</sup>ND(normal dysfluency)  
<sup>2</sup>AD(abnormal dysfluency)

집단 간 비유창성 유형별 출현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과업에서 나타난 유형을 합하여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간투사와 반복1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t= 8.530, p<.001$ ), 다른 유형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다문화가정 아동이 모든 비유창성 유형에서 평균출현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유창성유형별 출현빈도는 간투사, 반복1, a반복2, 수정, a반복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정 아동집단은 간투사, 수정, 반복1, a반복2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집단 간 비유창성유형별 평균출현빈도 분석

비유창성 유형	다문화가정아동 M(SD)	정상아동 M(SD)	t	
간투사	13.75(2.49)	6.58(1.50)	8.530***	
ND	추저	.66(.77)	.41(.66)	.844
	수정	1.66(1.30)	1.41(1.24)	.482
	반복1	4.16(1.64)	1.33(1.15)	4.889***
AD	a간투사	.58(.79)	.16(.38)	1.634
	a추저	.08(.28)	.16(.38)	-.596
	a반복1	1.00(1.12)	.33(.49)	1.876
	a반복2	1.75(1.54)	.83(.38)	1.993

### 3. 집단 간 구어속도 비교

#### 3.1 집단 간 구어속도 차이

이야기다시말하기와 그림설명하기에서 집단간 구어속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야기다시말하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구어속도가 74.08, 일반가정 아동들은 113.50이며,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구어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t=-7.506, p<.05$ ). 그림설명하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구어속도가 74.41, 일반가정 아동들은 114.5이며,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일반아동가정 아동들보다 구어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t=-7.294, p<.05$ ).

표 6. 집단 간 구어속도 분석

	다문화가정아동		일반가정아동		t
	M	SD	M	SD	
이야기다시말하기	74.08	9.05	113.50	15.77	-7.506*
그림설명하기	74.41	9.87	114.50	16.27	-7.294*

#### 3.2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령별 구어속도 차이

이야기다시말하기와 그림설명하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구어속도가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어속도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9.620, p<.01$ ).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연령대를 알기 위해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3세와 5세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설명하기에서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의 연령별 구어속도 분산분석

과업	연령	M(SD)	SS	df	MS	F	Scheffe
이야기다시말하기	3	65.00 (6.87)	615.16	2	307.58	9.62**	3세 < 5세
	4	74.75 (3.09)					
	5	82.50 (6.24)					
	3	67.75 (10.59)					
	4	72.75 (5.25)					
그림설명하기	4	72.75 (5.25)	466.66	2	233.33	3.464	
	5	82.75 (7.88)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언어연령이 정상 범주에 속하는 3~5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다시말하기와 그림설명하기 과업으로 유도한 발화를 통하여 비유창성 평균빈도와, 비유창성 유형, 구어속도를 측정하고,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야기다시말하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비유창성 평균빈도가 12.58회, 일반가정 아동들은 5.83회, 그림설명하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비유창성 평균빈도가 11.58회, 일반가정 아동들은 5.33회로, 두 과업 모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비유창성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야기다시말하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유창성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3세와 4세, 3세와 5세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림보고설명하기 과업에서는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일반가정 아동보다 비유창성 평균빈도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언어유창성은 유창한 구어를 산출하기위한 선행조건이라는 것을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 말더듬은 비유창성이 언어능력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말산출의 어려움으로 보지만, 언어발달기에 있는 아동들은 구문적, 의미적, 화용적 유창성 또한 발달 과정에 있어서 미숙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표준화된 언어검사에서는 정상범주에 해당하더라도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언어적 능력을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으로 다양한 말하기 상황에서 구어적으로 유창하게 반응하는데 능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유창성은 발화 환경, 대상, 주제 등과 같은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아동에 있어서 언어능숙도와 비유창성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13], [14]. 비유창성은 다단계 발화가 시작되는 언어발달시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언어능숙도는 유창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15]. 아동의 말더듬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외부적, 내부적 압력

이나 요구가 아동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어서면 비유창성이 발생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은 부족한 언어자극과 경험으로 아동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아동의 언어능력을 초과하여 비유창성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언어의 구문적 구성의 어려움이나 단어 회상 및 단어 찾기의 어려움이 비유창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16].

비유창성 유형을 정상적인 비유창성과 비정상적인 비유창성으로 나누어서 본 결과, 이야기다시말하기와 그림설명하기 과업 모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이 일반가정 아동 집단 보다 비정상적 비유창성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이나 일반가정 아동 모두 두 과업에서 정상적 비유창성이 많이 나타났으나, 비정상적 비유창성의 경우 일반가정 아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다문화가정 아동은 두 과업 모두 비정상적 비유창성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언어를 기획하고 구어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머뭇거림과 부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더듬 아동들이 정상아동에 비해 정상적 비유창성 비율이 2배 이상 높고, 비정상적 비유창성 또한 유의하게 높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해 볼 때[17],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구어유창성에 대한 지도가 조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야기다시말하기와 그림보고설명하기 두 과업에서 나타난 유형을 합하여서 비유창성유형별 출현 빈도를 알아본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이 일반가정 아동 집단 보다 간투사와 반복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다른 유형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다문화가정 아동이 모든 비유창성 유형에서 평균출현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유창성유형별 출현 빈도는 간투사, 반복1, a반복2, 수정, a반복1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일반가정 아동집단은 간투사, 수정, 반복1, a반복2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간투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두 집단 모두 언어발달기에 있는 학령기 이전 아동이므로 언어적인 기획을 생리적인 산출로 전환할 때 나타나는 머뭇거림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유형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의 비유창성 빈도가

높았으며, 두 과업 모두에서 비정상적 비유창성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비유창성 유형에서 질적, 양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야기다시말하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구어속도가 74.08, 일반가정 아동들은 113.50이었고, 그림설명하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구어속도가 74.41, 일반가정 아동들은 114.5이었고, 두 과업 모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구어속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말과 정보의 흐름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말속도는 유창성의 한 측면이지만 말 산출의 용이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며, 말소리와 단어의 길이는 발화동안 화자가 예상하는 정보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18].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이러한 말 산출의 생리적인 측면의 용이성과 정교성, 언어적인 정보의 기획과 관련된 어휘 회상력, 구문 구성력 등에서 일반가정의 아동들 보다는 숙달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구어속도는 개인차가 매우 크지만 유창성을 측정하는 대표적 행동 변수이므로 [19], 점차 구어속도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은 유창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발달기에 있는 학령전기 아동들의 구어속도는 학령기 아동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구어속도는 일반아동과 단순히 표준치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구어속도가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즉, 아동의 조음, 명료도, 음성, 유창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고려하여 구어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더 나은 의사소통을 초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 또한 학령전 아동의 유창성 및 언어발달과 관련된 변수인 구어속도는 아동 구어의 자연스러움에 민감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아동 말의 유창성에 있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부모의 발화속도[21], 부모와의 주고받기와 반응시간, 대화의 복잡성, 아동의 말을 수정해 주는 구어[22] 등이 아동의 유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다문화 가정 아동 어머니는 아동의 유창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발화속도의 자연스러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언어적 지

원을 시도할 때 유창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어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과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차이 등으로 오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줌으로 아동의 비유창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생활연령, 언어능숙도, 수용언어, 표현언어, 가족구성원, 어머니의 국적,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등과 아동의 비유창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말더듬과는 다른 언어차이로 인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유창성 특성과 진단과정, 일반아동과 유사해지는 시점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1] 통계청, 다문화가정 자녀의 실태조사, 2009.
- [2]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연구, 2007.
- [3] 정순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유아 언어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8.
- [4] 이영주,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공주대학교대학원, 2007.
- [5] 이수정,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 연구: K-BNT-C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8.
- [6] 김병순, 다문화가정 자녀의 유치원 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7] 장은숙,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경험 이해.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8.
- [8] 정은희,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Vol.13, No.3, pp.33-52, 2004.
- [9] 김경자,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업적 적응, 석사학위 청구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10] 신호선,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 논문. 대구대학교대학원, 2008.

[11] 김영태, 성태제, 이윤경,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2003.

[12] 심현섭, 이은주, 신문자,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 파라다이스 재단, 2004.

[13] D. L. Jankelowitz and M. A. Bortz, The interaction of bilingualism and stuttering in an adult.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Vol.29, No.3*, pp.223-234, 1996.

[14] 이수복, 심현섭, 신문자, 취학전 이중언어아동의 비유창성 특성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Vol.12, No.2, pp.293-316, 2007.

[15] J. V. Borsel, E. Maes, and S. Foulon, Stuttering and bilingualism: A review.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6*, pp.179-205, 2001.

[16] J. Au-Yeung, P. Howell, S. Davis, N. Charles, and S. Sackin, UCL survey on bilingualism and stuttering. Paper presented at the Third World Congress on Fluency Disorders. Nyborg, Denmark, 2000.

[17] M. W. Pellowski and E. Conture, Characteristics of speech disfluency stuttering behaviors in 3-and 4-year-old children. *Journal of Speech, Language, Hearing Research, 45*, pp.20-34, 2002.

[18] C. W. Starkweather, *Fluency and stutter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7.

[19] B. Guitar, *Stutter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its nature and treatment*. Baltimore: Rose Tree Corporate Center, 2006.

[20] 신명선, 안종복, 과업에 따른 학령전기(5~7세) 아동의 구어속도에 관한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Vol.1, No.3, pp.162-172, 2009.

[21] E. M. Kelly, Speech rates and turn-taking behaviors of children who stutter and their

fathers. *Journal of Speech, Language, Hearing Research, 37*, pp.1284-1294, 1994.

[22] H. H. Gregory and D. Hill, Stuttering Therapy for children. In W. Perkins(Ed.), *Stuttering disorders*, pp.351-363, New York: Thieme-Stratton, 1980.

저 자 소 개

신 명 선(Myung-Sun Shin)

정회원



- 1996년 6월 : 대구대학교 재활과 학대학원 언어치료전공(이학석사)
- 2006년 2월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치료전공(이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 언어장애진단, 유창성 장애, 신경언어장애